

● 사람은 자기 영토에서 살아야 한다

- 세상은 사실 우리 자신의 집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며 그 정거장이 불타고 있다고 한다. 우리는 그저 나그네다. 부처는 불타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아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 부처가 되라는 뜻이다. 그러면 자기 영토를 갖게 될 것이며,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 전체가 될 것이다.

사람은 자기 영토 위에서 살아야 한다.

그래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고
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살 수 있다.